

사람은 때때로 삶의 근본적인 질문을 떠올립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누구에 의해 창조되었는가?”,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와 같은 질문입니다.

무신론자들은 빅뱅 이론이나 진화론을 주장합니다. 반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신의 창조(창조론)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르겠다”고 답하는 많은 무신론자들은 사실 알라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알지 못할 뿐입니다.

물론, 빅뱅 이론은 우주의 시작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지만, 그 “먼지 구름”이 어디서 왔는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우주의 별과 은하의 기원을 포함한 그 먼지 구름은 대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누가, 혹은 무엇이 그것을 창조했습니까?

마찬가지로, 진화론은 화석의 형성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인간의 '영혼'이라는 정신적 본질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영혼을 느끼고, 이야기하고, 기도할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종교뿐입니다. 자연 선택은 생물의 변화는 설명할 수 있어도, 인간의 영혼의 존재에는 답할 수 없습니다.

복잡한 생명과 우주의 구조를 연구하는 이들은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림이 있다면 화가가 있습니다. 조각이 있다면 조각가가 있습니다. 도자기가 있다면 도예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정교하게 정돈된 우주를 보고 왜 '창조주'의 존재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빅뱅 후, 물질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진화와 자연 선택을 통해 완벽한 우주가 형성되었다”는 생각은 다음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비합리적입니다:

폭탄이 터지고, 파편이 바람에 날려 자연스럽게 조합되어, 결국 아름답게 디자인된 벤츠 자동차가 만들어졌다.

강력한 통제가 없다면 어떤 시스템도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빅뱅이나 진화론은 통제가 없어도 이 완벽한 우주가 우연히 생겨났다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우주가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 '통제받고 있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누가 그것을 통제했는가? 창조주가 아니겠습니까?

한 아랍 유목민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오아시스에서 아름다운 궁전을 보고, 그것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이건 자연적으로 생긴 거야. 바람이 바위를 깎고, 바위가 폭발하여 파편이 모여 궁전이 되었지. 바람이 양털을 옮겨서 양탄자가 되었고, 나무가 날아와 가구가 되었으며, 번개가 모래를 유리로 바꾸어 창문이 되었어...”

— 수십억 년에 걸쳐, 우연히 이 지역에서만 발생한 자연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 이 말을 믿겠습니까?

역사나 자연 법칙을 알게 되면, 이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교한 우주와 생명을 창조한 존재는 누구입니까?

일부 무신론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세상은 불완전하고 결함투성이야. 완전한 창조주가 있다면, 왜 세상이 그렇지?” 하지만 이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놓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질병, 장애 등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알라께서 이 세상을 ‘시험의 장’으로 삼으신 것의 일부입니다.

이 세상이 완전하지 않은 이유는, 인간이 내세에서 진정한 보상과 처벌을 받기 위한 시험을 받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현세에서 가장 많은 시련을 받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예언자들입니다.

그들은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의와 신앙을 지켰으며, 내세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논리를 통해,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며, 알라야말로 ‘창조주’입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다음 질문으로 나아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